

## 축 사

한국불교계의 대표적 국제개발구호 NGO인 지구촌공생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구상에 인간사회가 생긴 이래로 항상 강자와 약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였고, 이들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과 다툼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갈등과 다툼을 그치도록 하는데 종교와 선각자들이 힘을 써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불자들이 가져야할 가장 큰 미덕으로 보시를 강조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주상보시를 최상의 보시로 칭찬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현대사회는 더 많이 분화되었고 고통과 어려움의 양상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국가와 제도로 뒷받침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민간 차원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 바로 NGO 단체들입니다. 이 비정부 민간국제단체들은 보다 조직화된 모습으로,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고통을 나누고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활동은 하나의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인 활동으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우리 불교계가 이와 같은 NGO활동에 나선 것은 다소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 지구촌공생회의 이사장이신 월주 큰스님과 같은 혜안을 가진 선지식의 원력에 힘입어 지금은 어느 곳 못지않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월주 큰스님께서서는 불교계 최초의 NGO인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을 창립하신 선구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단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제구호기구인 지구촌공생회를 설립하시어 불교계 NGO 활동의 지평을 확대해 주셨습니다. 이로서 불교계 NGO는 국경이라는 틀을 벗어나 국제적인 연대와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촌공생회는 그동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몽골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교육사업, 식수지원 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전개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캄보디아에 우물 2000기를 완공하는가 하면, 라오스와 네팔에 학교를 건립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작년부터는 그 활동 영역을 아프리카의 케냐까지 확대하여 자비의 손길을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구호 활동은 물론, 국내 저소득층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이나 긴급구호활동도 쉼 없이 전개하면서 NGO 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촌공생회의 지난 10년은 한국불교의 자랑이자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리

고 이와 같은 소중한 자산은 10년 동안 헌신해온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따스한 마음의 결정체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 그리고 세계는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시작된 지구촌공생회의 지난 10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10년은 한국불교의 자랑스러운 국제구호단체에서 세계불교의 자랑스러운 구호단체로 발전해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구촌공생회 설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송월주 이사장 스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불기2558년 3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